“벼에서 논콩으로” 전략작물 통했나…쌀값 하락세 멈췄다

정부, 산지 쌀값 안정화 정책 지속…지난달 전년비 1.1% 상승 전환

벼 재배 8만ha 줄고 전략작물 직불제 강화로 논콩 재배의향 49% 늘어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늘리는 등 ‘산지 쌀값 안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추락하던 쌀값이 일부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쌀값과 급등한 인건비·자재비 등으로 벼 농가의 수익성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농가 수익 개선 사업이 발굴·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 5일 기준 20㎏ 당 4만843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그동안 산지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후 지난 3월 25일 기준 20㎏ 당 4만829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상승 전환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5월 하순~6월 초순께 산지쌀값 상승이 이뤄지는 것보다 이른 시기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쌀값 안정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등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쌀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쌀 가격 하락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최근 전략작물직불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정책방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콩, 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기존에 벼를 생산하던 논에서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논콩을 직불제 대상 품목에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깨 등을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또 우리밀은 재배면적 1ha 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도 1ha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쌀값 안정 및 전략작물 확대 의지로 벼 재배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논콩 재배면적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정보 쌀·콩 4월호’ 첫 벼·논콩 재배의향면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의향면적은 66만3000ha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올해 수확기 이후 2025년산 쌀 생산량 전망치도 344만 t으로 전년(358만 t)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콩 재배의향면적은 1년 전보다 13.6% 확대된 8만4100ha로 증가했다. 밭콩 재배의향면적이 인력 부족 등으로 1.7% 소폭 감소했지만, 논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48.9%나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도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나주시 성북동 동신대에서 열린 ‘2025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장 전문가 육성 교육’에 참여해 강의를 듣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문가 육성

찾아가는 마을리더 교육도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나주 동신대에서 ‘2025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장 전문가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정책·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남도를 비롯한 전남 21개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및 연구용역사 등 관계자 46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정책 방향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기본계획 시범수립 사례 등 총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정책·사업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전남 21개 시·군별로 ‘찾아가는 마을리더 교육’을 운영하는 등 농촌주민의 교육 편의를 높여갈 방침이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현장에서 상향식 구조로 농촌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남 21개 시·군의 정책담당자와 각 마을리더들의 역량 향상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농식품부, 양동시장·목포동부시장 등 16곳 시범 운영

정부가 광주 양동시장 등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모든 품목을 20% 할인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각 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에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통시장은 전국 16개로, 광주·전남에서는 양동전통시장과 목포동부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광주 최대 규모인 양동전통시장 소재 120개 점포, 목포동부시장 50개 점포 등 시장 내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점포에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5000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최대 충전 금액의 20%인 4000원까지 추가 충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카드는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으면 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전통시장 내 포스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상시 할인에 나선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각 지역의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 설치를 지원하고, 농축산물 상시 할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개월에 거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개선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행사 참여 전통시장 및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께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사업이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고물가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관원, 동계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 점검

6월30일까지 재배여부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6월 30일까지 동계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동계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농업인은 2만 730여명, 8800 필지 규모로 집계됐다.

전남지원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 인상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의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의 50%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등 표본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직불금 지급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지와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휴경 농지 및 시설 설치 농지로 확인된 경우에도 직불금을 미지급한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품목과 단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역 농업인들도 직불금 감액 및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출하 전 잔류농약 확인”

광주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광주시가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돕고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 전 미리 잔류농약을 분석해 적합여부가 확인가능하다.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농업인은 출하 시기를 조절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몰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잔류농약 분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7~10일 전에 재배 중인 농산물(0.5~1㎏)을 채취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봉투(지퍼백)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에 주소지와 농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출하 농업인은 무료(분석 수수료 8만 7000원, 2025년 한해 면제)로 이용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